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6호 【루계 제24499호】 주체103(2014)년 3월 2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현대화에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현대화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12일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내각사무국,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충정의 한마음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짜고들었다.

교육위원회, 식료일용공업성,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일군들은 공장현대화에 동원된 교원, 연구사, 기술자, 창작가들이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와 경공업설계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답게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콤퓨터화,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실현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한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기술자, 로동자들은 설비조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원동발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원동발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 원동발전상이 26일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주체의 최고성지에 바쳐가는 천만군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심

지난 2년간 전국각지에서 금수산태양궁전에 수많은 나무와 꽃관목, 꽃뿌리들을 보내여왔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꽃향기속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금수산태양궁전에 희귀하고 향기그윽한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을 보내여오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들의 수는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런 가슴뜨거운 현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아름답고 황홀한 꽃바다속에 천만년 높이 모시고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도덕의리심이 얼마나 열렬하고 진실한것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태양의 집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하가 끊임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내온 뜨거운 지성이 깃든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이 해마다 태양의 성지에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천하의 절승,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갈 순결한 마음안고 보내온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은 태양의 성지에서 무성하게 자라 그윽한 꽃향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설레이게 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현재까지 거의 매일이다싶이 인민군장병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 근로단체조직들, 교육기관들, 각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 등과 함께 관리에 필요한 기재들과 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여오고있다.

지난해 3월 로동성 국장 리철산동무와 국의 일군들이 키낮은사과나무 60그루, 회령백살구나무 100그루, 백도라지 4천여뿌리 등을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싣고왔으며 그밖에도 로동성의 많은 일군들이 각종 나무들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태양의 성지를 찾아왔다. 4월에는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이 도안의 청소년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꽃뿌리, 꽃씨, 나무모 등과 수많은 관리도구를 가지고왔으며 5월에는 함경남도 허천군 상농고급중학교의 리일준학생이 세잎소나무 42그루와 오미자나무 10그루를 보내여왔다.

선교구역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리춘복동무의 가정에서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해마다 여러차례씩 수십종의 많은 꽃씨와 잔디씨를 가지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올해 식수절인 3월 2일에도 은률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충정의 마음이 어린 복숭아나무 43그루, 감나무, 살구나무 각각 38그루, 사과나무 1그루, 홍초 110뿌리를 보내온것을 비롯하여 이 하루동안에만도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성의껏 마련한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을 보내오거나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직접 심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보내여온 수삼나무, 은행나무, 붉은참나무, 평양단풍나무, 명자나무, 회령백살구나무, 구슬꽃나무, 앵두나무, 키낮은사과나무, 목란, 철쭉, 글라디올라스, 고려병꽃나무, 은방울꽃, 두봉화 등의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은 그 종과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을 정성껏 가꾸기 위해 애써온 날과 달들, 가지 하나, 뿌리 하나 상할세라 온갖 지성을 다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실어오던 나날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신념으로 간직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만이 수놓을수 있는 력사에 없는 일편단심의 화폭이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수령홈모, 수령칭송, 수령영생의 대서사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4월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바친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고결한 충정과 지성을 우리 당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선군시대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사에 불멸의 금문자로 빛나게 아로새길것이라는 뜻깊은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천만군민이 매일과 같이 보내여오고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천하의 절승을 펼치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영원히 충정다해 높이 모셔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정신세계가 얼마나 지극하고 아름다운가를 온 세상에, 후손만대에 더욱더 생동하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사회주의위력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우리 당의 사랑이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자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류경구강병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송기호의 보고에 이어 1부원장 리명철, 과장 김금실, 부원 안도군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찾아주시고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기공실, 보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구강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과 헌신적인 로고가 있어 병원이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과 같이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생활력을 과시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어린 의료설비와 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환자치료에 정성을 기울여나감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술실무적자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의료기구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옥류아동병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남현숙의 보고에 이어 원장 전광철, 부원장 강영란, 실장 김영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자나깨나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너무도 뜻밖에 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과 대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옥류아동병원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저저마다 품에 안겨드는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을 무랍없이 대해주시며 어린이들이 치료받는 모습도 기쁨속에 보아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의료일군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새겨안고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며 치료예방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해 그들이 조국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의료설비들을 잘 관리하며 환자들에게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이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3대혁명소조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각지 당조직들에서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출품된 전시품들에는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온 소조원들의 창조적열정과 함께 3대혁명소조사업을 적극 떠밀어준 각지 당조직들의 노력도 뜨겁게 슴배여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는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전시회를 앞두고 도안의 당, 행정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당책임일군들과 실무일군들로 전시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력량을 꾸리였다.

지난 1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내려간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전시회준비정형을 알아보았다. 그는 현지에서 회전식착정기모형제작을 비롯하여 전시품준비를 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만나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알려주고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일군인 주영철동무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 나가 3대혁명소조원들이 어느 한 전국프레스의 축소모형제작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도 3대혁명소조원들의 전시회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는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안한 27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창안품들이 전시되게 되였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전시회준비를 위하여 먼저 청단군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전시회에 출품할 전시품준비정형을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책하였다.

이와 함께 도안의 시, 군들에서 당책임일군들이 전시회준비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도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맞게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전시회준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대책하도록 하는 한편 시, 군별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기술혁신성과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과학기술위원회와의 련계밑에 전시회에 출품되는 모든 전시품들이 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안제작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밖에도 평양시당위원회와 함경남도당위원회, 남포시당위원회, 량강도당위원회, 자강도당위원회, 황해북도당위원회, 강원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온 각지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서해안의 농촌들에서

벼모판씨뿌리기 시작

서해안의 농촌들에서 벼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농사를 잘 지어 올해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 비상한 각오안고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온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벼모판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우고있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이 벼모판씨뿌리기로 끓고있다.

룡천군, 신의주시, 정주시, 곽산군, 철산군의 농장들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실리있는 벼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이미 수백정보의 온실모씨뿌리기를 끝내였다. 피현, 동림, 운전, 운산군의 농장들에서도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고있다. 이곳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이끌고있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25일 현재 벼모판씨뿌리기실적은 40%계선을 돌파하였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씨뿌리기적기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씨뿌리기에 들어갔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신천군에서 벼모판씨뿌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이어 일군들이 시와 군들을 맡고나가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연안, 배천, 청단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남먼저 일손을 잡은 일군들은 모판만들기를 앞세워야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몸을 잠그고있다. 모판만들기가 앞서는것만큼 씨뿌리기성과가 오르고있다.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벼모판씨뿌리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사리원시, 황주군, 송림시, 은파군, 린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농장들에서는 질좋은 부식토와 모판자재들을 착실히 마련해놓고 씨뿌리기에 들어갔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품종벼종자의 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것과 함께 감이 드는 차제로 모판만들기를 앞세우면서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있다.

숙천군, 개천시, 은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도 종자처리를 앞세우면서 벼모판씨뿌리기를 기술적으로 하고있다.

각도, 시, 군들에서 벼모판씨뿌리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농장들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재령군 남지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통나무, 동발나무생산성과 확대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올해에 들어와 매일, 매월 동발나무와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관리국에서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3월에도 수천㎥의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관리국에서는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산판마다에 집중하여 동발나무, 통나무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생산소대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발나무, 통나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량림, 자성림산사업소, 고인, 희천, 송원갱목생산사업소들이 생산전투에서 앞서나가고있다.

얼마전 관리국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수십t의 연유, 수만m의 쇠바줄, 100여대의 기계톱, 자동차, 뜨락또르의 만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마련하여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 보내주었다. 이와 함께 갱목생산사업소, 림산사업소들에서 공무, 건설, 생필을 비롯한 보조부문의 로력으로 생산소대를 무어 그들이 겨울철생산전투에서 한몫하도록 하고있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마감나르기실적을 계속 높이고있다.

량림림산사업소 삼포작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산지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면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제끼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희천갱목생산사업소의 극성, 판대, 명대작업소들의 로동자들은 지형조건에 맞게 삭도를 리용하면서 사이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량림림산사업소의 10여개가 넘는 작업소들에서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통쏘이방법으로 1만 수천㎥의 통나무를 산지나무터들에 끌어내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인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들도 튼튼한 공무기지에 의거하여 림철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면서 매일 수십㎥의 동발나무를 철도역에 실어내고있다.

위원, 동신, 송원갱목생산사업소, 룡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생산조건을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뚫고나가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격동적인 현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밀림속의 군정대학들에 나래치던 혁명적학습기풍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학습도 전투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런 혁명적학습관점을 지니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판가리결사전을 벌리는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학습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드놀지 않는 강철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학습을 생활화하며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인것으로 하여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에도 그 생활력을 뚜렷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인 학습방법들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그 생활력이 확증된 훌륭한 학습방법입니다.》

간고한 항일혈전의 나날에 진행된 군정학습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사람들은 오늘도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10여명의 대원들이 로흑산의 사나운 눈보라와 적의 포위를 뚫고나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그 라자구등판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잘 모를것이다.

그때 부대는 라자구등판의 깊은 수림속에서 마로인의 산전막을 찾게 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할 대담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조선혁명이 영영 쓰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최후승리를 이룩하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그때 학습을 할수 있으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할수 있었겠는가. 백만대군이 달려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담대한 배짱,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천재적예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담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에 대한 학습은 물론 전술연구, 무기구조, 사격법 등의 군사훈련도 동시에 진행된 군정학습을 통하여 대원들이 심장으로 간직한것은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혁명적의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진출하여 적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던 1930년대 후반기부터 깊은 수림속밀영들에서는 한달 혹은 몇달씩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진행하였다. 동강과 마당거우, 백석탄과 화라즈밀영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군정학습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주체26(1937)년 4월초부터 1개월동안 동강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훈련의 전과정은 국내진공을 위한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그때 군정훈련에서 모범으로 평가되였던 대원들속에는 마동희동지도 있었다. 마동희동지는 열성도 높았지만 토론도 아주 잘하였다. 적들의 회유와 모진 고문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마동희동지의 혁명적신념과 절개의 밑바탕에는 바로 군정학습의 나날에 심장깊이 체득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자리잡고있었다.

후날 항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의 어느 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러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어떤 고장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속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장수수만명을 길러냈다는 전설까지 나돌았다. 그런 전설을 낳은 고장이 다름아닌 동강의 군정훈련터 고려보자였다.

마당거우밀영 하면 사람들은 제일먼저 군정학습을 생각한다. 그만큼 주체26(1937)년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 하순까지 마당거우밀영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군정학습은 항일혁명투쟁사에서 커다란 지위를 차지한다.

그해 봄에 있은 동강에서의 군정훈련에 이어 마당거우에서 또다시 진행된 군정학습은 당시의 절박한 사정으로부터 취해진 혁명적조치였다. 일제의 중일전쟁도발과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놈들의 후방을 호되게 타격하며 혜산사건과 열하원정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전진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수많은 신입대원들이 새로 들어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급속히 확대된 사정이 또한 집중군정학습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매개 대원, 지휘관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정해주시였으며 부대별, 조직별, 학습반별로 진행된 회의들에서 학습을 잘할데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모든 대원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림으로써 그들이 조선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준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시고 정치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군사훈련을 배합하도록 하시였다.

정치학습의 기본교재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들과 혁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자주적립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였다. 군사훈련의 기본학습교재 역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유격전술과 전법들이 상세히 지적되여있는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을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이였다.

강의받은 내용을 가지고 론쟁의 분위기속에서 토론하는 방법, 문답식학습방법, 개별담당하여 가르쳐주는 방법, 글을 짓게 하여 배운것을 익히는 방법,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리해시키는 방법, 노래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하는 방법 등 학습방법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 문답식학습은 그해의 군정학습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효과적인 학습방법이였다. 문답식학습은 학습반이나 조사이에 경연의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집단의 학습열의를 부쩍 높여주었으며 학습에서 형식주의와 독경식방법을 없애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게 하여 체득한 지식을 더욱 공고화할수 있게 하였다.

당시 신입대원들가운데는 머리타발을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동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할 때마다 흥범도도 자기같은 무식쟁이였지만 독립군대장노릇을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글을 몰라 혁명을 못한다는게 무슨 소린가고 반박하군 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시였다. 그러시면서 누구도 그 편지를 읽어주지 않도록 하시였다.

신입대원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사령관동지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연이 적혀있는지를 통 알도리가 없었으니 참 야단이였다. 아는 동무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하다가 이 소대에서 저 소대에로 또 이 중대에서 저 중대에로 발이 닳게 돌아다니며 편지를 봐달라고 빌붙었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보아주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신입대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편지를 읽어주시였다. 거기에는 무슨 일을 몇시까지 하고 사령부에 와서 보고하라는 긴급지시가 적혀있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고온 때는 이미 편지에 지적된 시간이 퍽 지난 뒤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집행할수 없게 된 그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 봐라, 무식하다보니 사령관의 명령도 집행 못했다, 동무가 적구에 나가 사업할 때 내가 편지로 어떤 명령을 떨구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였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신입대원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잘못을 뉘우쳤다. 그때부터 그는 학습에서 열성을 내였는데 후날 높은 정치군사적자질을 갖춘 훌륭한 지휘관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회고하시면서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야 신념이 강해지고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높아진다, 내가 알고있는 빨찌산영웅들은 례외없이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였다라고 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조선혁명을 완전히 압살해버리려고 미쳐날뛰고있는 그 엄혹한 정세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은것은 오직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보시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고 실천하실수 있는것이였다.

정녕 마당거우에서의 군정학습은 대원들의 정치군사적자질을 한계단 높이고 그들모두를 견결한 혁명가로 키운 하나의 군정대학과정이였다.

정세가 엄혹할수록 학습을 앞세우시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이다. 륙파송전투와 자신즈전투가 있은 후 백석탄에서 진행된 군정학습도 그 실례로 된다.

1939년 가을부터 일제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명목밑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여기에는 무려 20여만에 달하는 대병력이 동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으로 적들을 이리저리 끌고다니시다가 돈화의 벽지에다 떼여버리시고 백석탄밀영에서 여유있게 군정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적들이 대대적인 력량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엄혹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조선혁명의 붉은 기발을 끝까지 고수하여야 하며 조국해방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여야 한다는것, 전체 대원들과 지휘성원들의 정치, 군사지식수준을 한계단 높여가지고 다시금 국경일대로 진출하여 조국해방의 홰불을 더욱 높이 올려야 한다는것이 백두산청년장군이신 우리 수령님의 의도였다.

백석탄밀영에서의 집중적인 군정학습은 말그대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백석탄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학습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새로운 단계의 대부대선회작전에서 정치사상적위력과 전략전술적우세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였으며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였다.

해방후 적지 않은 항일혁명투사들은 리력서의 학력란에 《88군관학교》 또는 《88야영학교》라고 써넣었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당당하게 써넣은 《88군관학교》나 《88야영학교》는 어디에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소부대작전과 정찰활동을 맹렬하게 벌리는 한편 군정학습과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한 교육제강은 정규적인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취급한 교육내용보다 폭도 더 넓고 심도도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방면적이였습니다. 훈련강도도 정규군사학교들보다 몇배나 더 셌습니다.

훈련강령자체가 지휘관양성을 목표로 한것만큼 군관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무방할것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리력서의 학력란에 국제련합군시절을 념두에 두고 〈88군관학교〉나 〈880야영학교〉라고 써놓는것은 이런 리유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앞두고 원동의 훈련기지에서는 군정학습과 훈련이 군관학교의 정규적인 교육강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국제련합군시절의 교육은 군사일면의 교육이 아니였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를 겸한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이였고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준비인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무력건설을 위한 준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꼭같이 중시하시면서 대원들이 정치경제학, 철학같은것도 학습하도록 하시였고 당건설리론과 경제운영문제도 연구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정치과목강의에 몸소 출연하시였다. 그이의 강의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있으면서도 알기 쉽고 통속적이여서 언제나 대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대원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하나의 전투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훈련기지에서만이 아니라 소부대활동임무를 맡고 적구에 나가 활동할 때에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더우기 학습총화를 앞둔 때면 행군길의 쉴참에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피곤을 무릅쓰고 책을 읽었으며 학습토론을 하였다.

학습도 전투다!

참으로 이 구호는 항일혁명의 혈로를 헤치던 나날에 찾아낸 철리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순간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에 녹이 쓸고 앞을 내다볼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전통은 위대한 계승에 의하여 더욱 빛난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무르익히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검증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의도이다.

온 사회에 백두의 밀림속에 차넘치던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이 확립되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때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이룩되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패배주의, 투항주의는 종파의 온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사람이 패배주의, 투항주의에 빠지면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난관앞에 주저앉게 되며 나아가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전락되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은 순수 지식이나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로 한다.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지조도 지켜낼수 없다. 그것은 변절자 리종락의 실례가 잘 보여주고있다. 리종락은 《ㅌ.ㄷ》시절에 일가견을 가진 혁명가로서 군사에도 밝았고 새사조에도 민감하였으며 조선혁명군의 책임적인 지위에까지 추천되였던 사람이였다. 그러나 신념과 지조가 없다보니 혁명이 간고해지고 시련을 겪게 되자 그것을 뚫고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투항변절하였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적신념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며 결국은 조국과 혁명도 배반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패배주의, 투항주의는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지 못한데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되는 반혁명적 사상독소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령의 사상은 삶과 투쟁의 드팀없는 신조로 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든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닥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신념화되지 못한 사상은 변질되기 쉽고 사상이 변질된 배신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당, 반혁명이다. 사회주의운동력사를 보아도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겁을 먹고 안으로는 부르죠아사상문화에 오염된 사상적변질체는 바로 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데로부터 산생되는 패배주의, 투항주의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누구나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패배주의, 투항주의와 같은 온갖 이색적인 잡사상, 잡귀신들이 자라날수 없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살며 투쟁하는것, 바로 여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목표가 있다.

패배주의, 투항주의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않는데로부터 생겨나는 위험한 사상경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쓰시였다.

전후 우리 당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였을 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전후복구건설에 쓰라고 주는 원조를 다 먹는데 돌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따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후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만일 그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주는 원조를 가만히 앉아서 먹는데만 써버렸다면 경제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둘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혁명투쟁사는 패배주의, 투항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민을 등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반당,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성벽을 쌓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면 일부 신념이 떨떨한 사람들, 동요분자들도 다 정신을 차리게 될것이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올해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패배주의, 투항주의는 종파의 온상이다.》**에 담겨진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누구나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로씨야 원동발전상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동지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 원동발전상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룡남무역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힘을

김만유병원 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계획밑에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누구보다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에게 로작의 진수를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이곳의 한 일군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로작의 사상을 새겨주는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해설강의를 통하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가슴깊이 체득하고있다.

—백두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사상의 힘으로 안아온 승리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 우리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속에 뚜렷이 증명된 이 력사의 진리를 절감할수록 하나의 이야기가 격정속에 돌이켜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체98(200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며 그해의 마지막전투를 지휘하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드디여 주체강철을 뽑아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겠는가고 하시면서 그달음으로 현지에 나오시였던것이다.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거창하게 일떠선 주체철생산공정들, 정련로에서 폭포쳐 쏟아져내리는 주홍빛쇠물…

이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업소의 한 일군은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새로운 제철제강법이 완성됨으로써 이제는 주체철에서 직접 질좋은 강철이 나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온 장내가 울리도록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드디여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완전히 성공시키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리도 장한 기적을 안아온 성강의 로동계급이 못내 대견하시였다.

이곳 일군들을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강철로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성강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말보다 실천으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 말하는 로동계급이 아니라 실천하는 로동계급, 자기 당의 사상과 로선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결사관철하는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성강의 로동계급이였다.

바로 이러한 그들을 내세워주고싶으신 마음을 담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성공시킨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당을 받드는 참된 충신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산소용융로에서 쏟아져나오는 붉은 쇠물은 성강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끓어번지는 충정의 쇠물, 단순한 과학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사상의 산물,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라고, 주체강철은 바로 주체철 더하기 사상에 의하여 태여났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가.

위대한 사상으로 안아온 창조물인 주체철은 일군들을 숭엄한 추억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일찌기 해방직후부터 강철공업에서 콕스에 매일것이 아니라 우리 식의 제철법으로 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지 못할 때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주체철생산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이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지 않았던가.

깊은 추억에 잠겨 눈시울을 적시는 일군들을 둘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간절히 념원하시던 주체강철이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주체강철의 탄생을 일일천추로 바라시며 우리 식 제철제강법의 완성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수령님께서 이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면서 주체철에 의한 우리 식의 제철제강법의 대성공은 수령님의 주체철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라고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체철사상의 빛나는 승리!

정녕 선군시대를 진감시킨 주체강철의 탄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심어주신 자주적신념에서 세차게 분출되는 가장 강위력한 사상의 힘으로 안아온 력사적승리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모란봉악단공연 련일 성황리에 진행, 더욱 고조되는 관람열풍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모란봉》의 노래폭탄

모란봉악단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장소인 4.25문화회관은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훌륭히 꾸려진 문화회관에서 참신하고 매력적이면서도 힘있는 공연을 보고난 사람들은 저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고있다.

《볼수록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공연》, 《우리 인민의 지향과 리상을 반영한 공연》,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는 공연》, 《참신하고 진취적이며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는 공연》, 《심장에 불을 다는 진군나팔소리》, 《한번 보면 또 보고싶은 공연》…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다.

진정에 넘친 관중의 이 목소리들은 그대로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인민의 평가로 되며 여기서 우리는 공연이 발휘하는 거대한 사상예술적감화력과 생활력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의 높이를 잴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관록있는 악단인 모란봉악단에서 형상한 노래들을 즐겨부르고있다.

공연이 그렇듯 볼수록 새맛이 나고 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어버이》,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서 높이 울린 이 노래들만 놓고보아도 올해에 들어와 새로 창작형상된 노래들이다.

종목편성을 이렇게 새로 나온 노래들을 배합하여 하니 공연이 새맛이 나고 관중의 마음을 더더욱 끌어당긴다.

특히 우리 인민의 주되는 사상감정과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민감하게 반영한 새 노래들인것으로 하여 관중은 노래들이 무대에 울릴 때마다 삶과 투쟁의 주제가를 받아안은듯 그렇듯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것이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것이다.

공연의 첫 종목인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의 노래구절을 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강성번영의 새봄을 마중가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절로 환희에 넘친다.

가수들이 경쾌한 률동에 맞추어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라고 노래부를 때 관중들이 일시에 마음속으로 박자를 맞추어가며 열렬히 호응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허공에 둥 뜬 예술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예술,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인 참신한 예술을 사랑하고 즐겨 감상한다.

모란봉악단공연의 흥취를 돋구는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의 노래구절은 새기면 새길수록 얼마나 흥그럽고 건드려진것인가.

…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로
나붓겨라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
가세
…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천하제일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여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영광속에 행복속에 존엄높이
살리라
…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높이 울려퍼진 또 하나의 《바다의 노래》와도 같은 이 노래는 과연 어떻게 태여났던가.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외워만 보아도 풍어기날리며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온 은정어린 고기배 《단풍》호들의 주인공들, 철령기슭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의 모습이 안겨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최고사령관의 사진편지》라는 혁명일화가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병사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펼쳐지는 사회주의 우리 생활의 풍만함과 랑만을 그대로 담은것으로 하여 노래는 나오자마자 거대한 예술적감화력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가슴을 틀어잡는것이다.

관중들은 긴 설명이 없이도 노래를 통하여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다.

이렇듯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하루빨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모란봉악단공연은 천만군민을 새로운 비약에로 고무추동하는 진군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는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인민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담은 《인민의 환희》와 같은 노래, 물고기비린내가 물씬 풍길듯 한 《바다 만풍가》와 같은 민족적흥취가 흘러넘치는 새 노래를 창작할수 없다.

들끓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인민대중과 숨결을 함께 할 때 당의 요구가 담겨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공연은 말없이 깨우쳐주고있다.

무대구성도 독특하다.

무대와 객석의 간격을 대폭 줄이고 무대가 객석과 하나로 련결된듯한 특색있는 구성형식을 취한것으로 하여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이 스스럼없이 결합되여 호흡을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교감한다.

출연자들의 연기형상 역시 밝고 명랑하면서도 진취적인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것으로 하여 볼수록 인상깊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들이 수행하는 경쾌한 동작들과 세련된 형상은 관중의 마음을 순간에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모란봉악단의 기악도 아주 독특하며 높은 수준이다.

박력있는 리듬과 힘있는 선률, 악기들의 독특한 음색, 이채로운 편성으로 하여 공연은 풍만한 예술적정서를 한껏 내뿜고있다.

조명, 분수, 배경 등으로 예술적조화를 립체적으로 잘 이룬 무대형상요소들도 눈길을 끈다.

참으로 안팎으로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 공연, 사람들의 심장속에 창조와 혁신의 불을 달아주는 힘있고 박력있는 공연이라는것이 관중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찬탄의 목소리이다.

모란봉악단은 인민의 심장속에 총진군의 기상을 한껏 더해주며 진군의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인민은 모란봉악단을 사랑한다!

박 옥 경

격동적인 공연과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사랑하는 예술이 가장 고상한 예술이며 진정한 예술입니다.》

각계층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시작된 때로부터 여러날이 흘렀다. 이 나날 모란봉악단공연이 우리 인민의 생활에 더해준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이 꽃펴났다.

류다른 풍경

지하철도 황금벌역에서 있은 일이다.

《모란봉악단공연을 봤어요?》

서로 아는 사이인듯 한 두 녀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모란봉악단공연이라는 말에 곁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래요. 두번째 날의 공연을 보았는데 정말 그때 받은 감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보았는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이나 4.25문화회관안을 돌아보다가 나왔다니까요.》…

두 녀인의 이야기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저마다 끼여들어 모란봉악단공연을 보고 받은 격정을 토로하였다.

이렇게 요즈음 거리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첫째가는 화제거리로 오르고있다. 그와 더불어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발걸음은 또 얼마나 기백에 넘쳐있는것인가.

때이른 기상시간

어제 락랑구역 충성2동에서 살고있는 송명순동무의 집에서는 이른새벽에 불이 켜졌다.

보통때에는 흔들어깨워서야 일어나군 하던 어린 아들이 모란봉악단공연관람표를 사러 가자며 이른새벽부터 깨여나 조르는 바람에 온 가족이 깨여났던것이였다.

벌써부터 공연무대가 눈앞에 펼쳐진듯 좋아하는 아들애의 모습을 보며,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통하여 더욱 마음이 커질 그의 모습을 그려보며 송명순동무는 자식의 손목을 잡고 락랑지구보급소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걸어온 전화

평천구역 북성1동에서 살고있는 김미화동무의 집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강도에서 살고있는 그의 시어머니가 걸어온 전화였다.

전화의 내용은 손자, 손녀들의 얼굴도 볼겸 지금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볼겸 평양으로 떠난다는것이였다.

이렇게 김미화동무의 집으로는 모란봉악단공연이 시작된 첫날부터 지방에서 여러통의 전화들이 걸려왔다. 지방에 사는 친척, 동무들모두가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싶어했다. 일단 전화가 시작되면 인차 끝나지 않았다.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모란봉악단공연열풍으로 들끓는 평양에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모란봉악단공연의 파문은 수도뿐아닌 온 나라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조 향 미

인민의 기쁨에서 찾는 보람

국가예술공연운영국과 그아래 지구보급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아마도 국가예술공연운영국아래 지구보급소들의 일군들과 보급원들이 지금처럼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껴보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매일같이 때없이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역전지구보급소의 차철훈, 량순선동무들도 관람표가 판매되던 첫날부터 몹시 바빴다고 한다. 일은 바빠도 관람표판매시간을 비롯하여 손님들의 물음에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실거린다.

서성지구보급소의 보급원인 리순정동무가 관람표를 판매할 때 있은 일이다.

매표구창너머로 낯익은 박사부부가 관람표를 사는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는것이 보였다.

《박사선생님들도 관람표를 사러 오셨구만요.》하고 리순정동무가 반갑게 인사하자 박사부부도 웃으며 눈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박사부부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의 재사들인데 몰라봐서 안됐다고 하며 먼저 관람표를 사게 하려고 팔을 잡아끌었다.

박사부부는 그들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박사이기 전에 평범한 시민이고 공민입니다.》

잠시후 표를 받은 박사부부는 먼저 표를 산 로동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보급소를 나섰다.

그들을 바라보는 리순정동무의 마음속에는 이런 인민을 위해 일하는 긍지와 보람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이렇듯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요즈음 국가예술공연운영국아래 지구보급소들은 관람표를 사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군 한다.

이러한 광경을 매일 보게 된 국가예술공연운영국의 일군들인 박호준, 남영숙동무들과 부원들, 보급원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동무들도 다 보았을것입니다. 지금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인민들의 관람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모두 관람표판매사업을 짜고들고 더 친절하게 봉사합시다. 인민을 위해 우리가 있다는걸 언제나 잊지 맙시다.》

하루사업정형에 대한 총화뒤끝에 일군이 한 이 말은 종업원들에게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지금 국가예술공연운영국과 그아래 지구보급소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열렬해지고있는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인민들의 관람열에 맞게 봉사사업을 더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잘해나가기 위하여 열정에 넘쳐 일하고있다. 인민들은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백 성 근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4.25문화회관으로 오고있는 각계층 군중들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가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도발적인 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박근혜는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얼토당토않게 걸고들며 심히 못된 망발을 지껄였다.

그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포기》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메쎄지를 좀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지어는 《령변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여있는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느니, 《북의 핵은 테로에 사용될수 있고 주변국 핵무장경쟁을 야기시킬수 있다.》느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특히 그는 이사람저사람을 만나서는 우리의 병진로선까지 걸고들면서 《불가능하다.》느니 뭐니 하고 시비질하였다.

박근혜가 지금까지 우리 핵문제와 병진로선에 대해 무엄하게 망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 그 《위험성》을 증명해보려고 우리의 평화적핵시설까지 어처구니없이 걸고들면서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을 초래할수 있다고 줴친데 대해서는 만사람이 쓴웃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아무리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고 하여도 무엇을 지절대겠으면 엄연한 사실자료나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바른대로 한마디 하려면 마땅히 핵무기를 제일먼저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켰으며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핵참화를 들씌우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있는 미국부터 규탄했어야 할것이다.

제땅에 미국핵무기를 가득 끌어들이고 지금 현재도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당사자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을 걸고들다못해 평화적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조소거리가 아닐수 없다.

핵시설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한다 해도 한해에 몇번씩 고장나 멈춰서고 핵오염물질류출사고까지 일어나 야단치는 남조선의 핵발전소와 일본과 미국에서 있은 특대형 핵발전소참사부터 먼저 꼽아야 할것이다.

부언하건대 우리의 주체적기술과 힘에 의해 건설된 녕변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십년이 지나도록 사소한 사고도 없이 오늘도 기운차게 잘 돌아가고있으며 그 주변의 환경오염은커녕 물과 공기, 경치가 너무도 좋아 우리 나라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얼마나 우리의 핵문제를 시비하고싶었으면 우리의 녕변핵시설을 체르노빌핵발전소에 생뚱같이 대비시켜 남조선언론들까지 과학적근거도 없이 북핵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가 국제적망신을 자초하였다고 비난, 조소하겠는가.

미국의 핵전쟁하수인인 박근혜가 상전의 흉내를 내여 《핵이 없는 세상》을 떠든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북핵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판별할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 아니면 미국과 한속통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병진로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그자신이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북남합의는 아무때나 뒤집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선거공약》도 아니고 리행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정배들의 상투적인 빈 약속도 아니다.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설사 누가 무식한 글을 읽으라고 써주었다 해도 이제는 청와대의 안방에까지 들어앉았는데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을 버리고 세상사람들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야 그나마 초보적인 자질이라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것이다.

박근혜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명백히 말해둘것은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있을수 있어도 일방적인 《북비핵화》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그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것이다.

《핵이 없는 세상》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되여야 하겠는가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고 핵무기의 조상이고 핵위협의 원흉인 상전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그래야 핵문제의 옳바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를 계속 지켜볼것이다.

매일 높은 생산실적 기록

룡수탄광에서

올해에 들어와 매월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자랑드높이 룡수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달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석탄생산을 1.2배이상 끌어올리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안석철, 표광욱, 김철수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갱막장들을 맡고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한편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중의 전투적사기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3갱의 김영산고속도굴진소대와 로천갱 민춘홍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앞선 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교대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2월중순에 벌써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민춘홍굴진소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상반년굴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쳤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다른 굴진소대들에서도 부족되는 동발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굴진공들이 드세게 암벽을 내밀며 힘차게 전진할 때 채탄공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매일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탄광석탄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은 3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이곳 갱에서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동발을 절약하고 채취률을 높여 매일 석탄생산을 1.3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2갱에서는 생산조건이 유리한 갱막장에 력량을 집중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로천갱과 5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곳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탄부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는 한편 막장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온 탄전을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호 혁

조선과 로씨야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26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룡남무역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일행,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리룡남무역상과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이 회담록에 수표하였다.

전국농업근로자배구경기 진행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배구경기가 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올라온 24개 단체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선수들은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전문선수들 못지 않은 강한 쳐넣기와 빠른공련락에 의한 순간타격, 재치있는 막기 등 훌륭한 경기장면들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경기에서는 황해남도의 남, 녀선수들이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승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산과수농장을 청춘과원으로 꾸려 덕을 보려면 품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김 정 일

철령아래 희한한 사과바다 펼치리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가 굽이굽이에 력력히 어려있는 철령아래의 고산과수농장건설장에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드세찬 공격전으로 과수농장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중요대상건설에서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의 영예떨치려는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리구간의 도로건설과 수십정보의 과수원보수, 많은 면적의 토지정리와 과일나무구뎅이파기 및 거름운반, 수천m³의 건설자재확보 등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 있습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고산과수농장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할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현장지휘부와 각 도려단일군들은 자기 단위가 맡은 전투과제는 자기가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결사의 책임감, 걸린 문제는 두뇌로 풀고 막힌 길목은 자신이 몸을 내대여 돌파구를 연다는 헌신적인 일본새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전투장 어디서나 대혁신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번지였다.

일군들이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품이 많이 드는 대상들을 단숨에 해제끼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을 내놓고 돌격대원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60여정보의 과수원을 보수할 전투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이 과수원은 흙쌓기방법으로 토지를 정리하고 사과나무를 심은 곳이여서 땅이 다져지면서 낮아졌던것이다. 그래서 무더기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과일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과수원보수를 종전의 방법대로 하자면 여기에 있는 수만대의 콩크리트지지대와 수십만그루의 사과나무들을 들어내고 흙을 깐 다음 다시 세우고 심어야 하였다. 많은 로력과 품을 들여 몇달동안에 해제껴야 할 작업량이였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때 현장지휘부 참모장 조용하동무가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작전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고 하면서 일군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리고 즉시 일군들, 돌격대원들과 무릎으로 마주하였다. 현장참모부의 일군들이 저저마다 이랑을 째면서 두둑을 짓는 방법으로 해제끼자는 안을 내놓고 기술적으로 담보해나섰다. 혁신적인 방도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 신심드높이 돌격전에 나섰다. 이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한달동안에 보수전투를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당중앙이 세계앞에 선포한 시간은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여 마식령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으로 비약하는 평양시려단의 여러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는것을 다시한번 심장에 새겨안은 강동군대대 일군들은 3월 강재생산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즉시 현지에 나가 과철보장을 앞세우면서 강재생산을 드세게 내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대대일군들은 파철수송을 맡아 힘있게 내밀었고 돌격대원들은 강재증산을 위한 드센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강재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갑자기 가열로의 천정이 녹아내리면서 생산이 중단되였다. 모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망설이고있을 때였다. 대대정치지도원 안홍학동무가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고 호소하며 뜨거운 로안으로 뛰여들었다. 돌격대원들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너도나도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그들은 무비의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16시간만에 가열로를 복구하고 압연기를 다시 가동시켰다. 결과 한주일동안에 강재를 계획보다 1.8배이상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통강구역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승리에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매일 600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를 생산할수 있는 철근을 조립하였고 대동강구역대대에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드세게 들이대며 깬돌생산과 막돌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실천투쟁으로 당을 받들고 충정의 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될것을 맹세하고 맡겨진 전투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유기질비료실어내기를 앞세우면서 과일나무구뎅이파기를 다그쳐 우승의 영예를 지닌 남포시려단 일군들의 일본새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피는 밑불이 되였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대정리까지 말끔히 해놓으면서 과일나무구뎅이파기를 질적으로 끝냈다.

어찌 이들뿐이랴.

과수원도로공사를 남먼저 끝내기 위해 자강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 000여m구간에 깔 흔석과 깬돌을 생산하여 많은 량을 실어냈다. 토지정리와 과수원도로건설을 제기일내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 륜전기재들로 토량운반을 통이 크게 해제낌으로써 일정계획을 150%이상씩 수행한 평안북도려단 염주군, 룡천군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도 볼수록 미덥다.

애국의 열정과 지혜와 슬기를 부강조국건설에 깡그리 바쳐가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산과수농장건설은 날이 갈수록 더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립체전의 앞장에 초급선전일군들을

남포시려단에서

요즘 618건설돌격대 남포시려단의 작업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가고있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려단의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는데 있다.

려단에서 3월 전투목표를 세우던 날이였다. 토지정리와 구조물공사, 과일나무구뎅이파기 및 거름넣기, 과일나무지지대세우기, 블로크생산… 이 전투과제를 한달동안에 해제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사상사업방침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직접 선전선동활동을 벌리는 전초병이며 정치활동가입니다.》

려단정치부장 전영복동무는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 거의 모든 대대들이 력량을 분산시켜 2~3개의 장소에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돌격대원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더 잘 알며 그들과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초급선전일군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이 전투장들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격대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 현장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들이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정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활동하여 선전선동사업의 실효를 최대로 높여나가는것만큼 전투장에는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초급선전일군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품성, 선동활동방법과 경험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 그들의 실무능력을 높여주고 사업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사업 등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 많은 품을 들이였다. 품들인것만큼 결과는 그이상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역대대의 토지정리전투장에서는 고산과수농장건설을 제기일에 다그쳐 끝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라는것을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는 초급선전일군들의 정열넘친 모습이 보였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토로하는 초급선전일군들의 열띤 목소리가 항구구역대대의 블로크생산전투장만이 아닌 다른 대대의 현장들에서도 울려나왔다.

이렇듯 려단의 정치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모두가 사상공세의 진지를 차지하고 돌격대원들을 최후승리의 영웅적진군에로 총궐기, 총발동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들이대니 온 려단이 부글부글 끓었다.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졌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이 부는 속에 려단에서는 3월전투과제를 한주일이상 앞당겨 끝낼수 있게 되였다.

위훈에로 부른 화선나팔소리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전투장에 전개된 수백대의 선전수단

며칠전 현장지휘부의 정치일군들은 전투현장에서 230여대의 방송선전차와 포전방송기재들에 대한 출동식과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단위의 방송설비들과 기재들의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각이한 조건에서 정황에 맞게 진행할수 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방법과 경험들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다. 이어 모든 방송선전차들과 포전방송기재들이 일제히 전투장들마다에 전개되여 사상전의 포문을 열었다.

혁명열로 끓게 해주는 취주악

각 도려단들에서 취주악을 통한 경제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평안남도려단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어렵고 힘든 전투가 벌어지는 곳마다에 지체없이 달려나가 취주악을 연주하여 대대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전투장마다에서 울려퍼지는 힘있는 취주악의 선률은 대고조진군의 힘찬 북소리가 되여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끓게 하여 그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모두가 메가폰을 메고

일군들모두가 언제나 메가폰을 메고 전투장으로 나가 쉴참에는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고산과수농장건설을 제기일에 다그쳐 끝낼데 대한 당의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혁신자들을 축하하여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어주고있다.

평안북도려단에서는 려단장, 려단정치부장은 물론 모든 대대지휘관들도 메가폰을 메고 현장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돌격대원들을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로공사에서 우승한 비결

평양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618건설돌격대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도로공사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려단일군들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쥐고 혁신의 불길을 지피였다.

로반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흙을 나르던 정치부장 한상철동무는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 려단의 륜전기재들이 도로입구에 주런이 멈춰서서 다급한 경적을 울리고있었던것이였다. 그곳은 려단이 맡은 작업구간이였다. 륜전기재들의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던 돌격대원들도 서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여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도로공사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려단일군들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쥐고 혁신의 불길을 지피였다.

로반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흙을 나르던 정치부장 한상철동무는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 려단의 륜전기재들이 도로입구에 주런이 멈춰서서 다급한 경적을 울리고있었던것이였다. 그곳은 려단이 맡은 작업구간이였다. 륜전기재들의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던 돌격대원들도 서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가까이 다가간 정치일군이 영문을 묻자 한 돌격대원이 작업장 한곳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거렸다. 뜻하지 않게 암반과 굳은 흙층이 나타나 작업구간이 넓어지면서 도로가 막혔던것이였다. 그는 함마질을 하며 작업량을 타산해보았다. 정대와 함마로는 옹근 하루품이 들었다. 이것은 려단의 일정계획수행은 물론이고 다른 려단들의 전반적인 도로공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수 있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그는 즉시 돌격대원들과 토의하였다. 한동안 생각을 굴리고있을 때 한 돌격대원이 륜전기재를 리용하면 순간에 해제낄수 있다고 하면서 행렬속에 멈춰서있는 다른 려단의 불도젤과 굴착기를 가리켰다. 륜전기재들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시간이면 그것을 동원하여 걸린 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였다.

정치일군은 즉시 륜전기재운전사, 운전공들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힘을 합쳐 과수농장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즉시 운전사, 운전공들이 돌격대원들과 마음을 합쳤다.

얼마후 도로는 열리고 일정계획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언제나 앞채를 메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되여 방대한 전투과제들을 단숨에 해제낀것도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만 한것이다. 일군들은 땅이 녹기 시작하자 도로포장준비를 앞질러 작전하는 과정에 깬돌생산에 품을 더 넣어야 한다는데로 관심을 모으게 되였다. 그것은 계획된 깬돌생산량에 비해 돌원천이 10%밖에 없었기때문이였다. 그것마저도 모두 큰돌들이여서 까는 품이 많이 들었고 질도 보장하기 힘들었다.

방도를 모색하던 어느날 정치일군은 순안구역대대가 운반하여 쌓아놓은 모래무지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모래속에 잔자갈이 절반이상 섞여있었던것이였다.

그는 순안구역, 중구역대대 대대장들과 현지에서 대책을 토의하고 두 대대가 먼저 경쟁적으로 깬돌을 생산하도록 지휘관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대대들에서 깬돌생산전투가 통이 크게 벌어졌다. 정치일군은 즉시 이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정치일군은 선전선동력량을 총집중하여 방송선전차선전, 직관선전 등으로 비약의 불길을 지피기 위한 현장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결과 려단에서는 한달동안에도 하기 어렵다던 깬돌생산계획을 한주일동안에 끝내고 당장 도로포장을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일군들이 신발에 흙을 묻히며 돌격대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작전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도로건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려단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선건축가동맹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건축가동맹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곽범기동지와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강영수 도시경영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동맹원들, 건설부문과 련관부문의 설계가, 건설자, 교원, 대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건축가동맹 일군들과 동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곽범기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건축가동맹의 일군들과 동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조선건축가동맹은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리론으로 동맹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나라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사회적조직이라고 강조하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3(1954)년 3월 26일 몸소 조선건축가동맹을 창립하여주시고 건설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마다 건축가동맹대회를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동맹원들과 일군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건축대강을 밝혀주시고 로동당시대 건설의 일대앙양기를 펼쳐주시였으며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건축창작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었으며 건축가동맹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동맹사업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준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은 창립후 지난 60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오면서 주체건축의 발전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고 강조하였다.

건축가동맹에서는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을 우리 당의 건축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켰으며 5.21건축축전과 건축미학토론회를 실속있게 조직하고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동맹원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여주고 나라의 건축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건축가동맹의 동맹원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기발한 착상, 정열적인 노력으로 특색있는 설계와 선진적인 건설공법, 건재생산기술을 많이 내놓고 건설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의 새력사를 창조하는데 공헌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건축가동맹의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은 최근년간 당중앙의 건설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 거창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으며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는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건축가동맹의 동맹원들과 일군들은 국제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 건축가동맹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주체적건축사상리론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백두산대국의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들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 건축물에는 세상이 우러르는 건축의 탁월한 영재들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온 건축가동맹의 동맹원들과 일군들의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건축가동맹의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당의 건설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수도건설위원회 참모장 김국남,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소장 리철호,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학장 량봉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건축가동맹의 창립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맹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영원한 동지, 혁명전우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건설부문에 차넘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맹조직들에서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드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리론, 건설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전반적건설을 당의 건설정책과 국가의 건설발전방향, 건설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5.21건축축전과 건축미학토론회를 당의 건축사상과 의도, 새로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며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모두가 불굴의 정신력과 비상한 창조정신, 높은 애국열의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여러곳 참관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념관의 여러 관들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등을 돌아보았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손님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할수 있은것은 인류가 칭송하는 위대한 장군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때문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또한 대표단은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통일거리운동쎈터, 메아리사격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해방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인민대학습당 참관

싱가포르, 까타르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 출발

싱가포르와 까타르를 방문하기 위하여 정동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이 26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부흥은 책을 가까이할수록 빨라지고 멀리할수록 떠진다

일곱개의 발명증서와 일군의 실력

청진스레트공장 지배인 림영준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력은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의 열매입니다.》

청진스레트공장의 어느 한 사무실벽에는 일곱개의 발명증서들이 나란히 걸려있다. 발명품들은 모두 공장에서 자체로 개발한것으로서 그 인기가 매우 높다. 그런데 그 매 증서마다에 빠짐없이 올라있는 이름이 있다. 공장지배인 림영준동무의 이름이다.

공장은 생산규모나 종업원수에 있어서 큰 단위는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공장은 모든것이 흥하는 공장으로 도적으로는 물론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하다. 그쯘히 갖추어진 생산토대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가지 건재품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국가발명권을 수여받을 정도로 그 가치와 수요가 대단하다.

비결은 무엇인가.

일곱개의 발명증서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지배인부터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니고 꾸준한 탐구와 사색으로 혁신적이며 실리있는 새 제품개발과 도입을 적극 추동해나가니 어찌 공장이 흥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계기가 있듯이 림영준동무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공장을 추켜세울 결심을 하게 된데도 까닭이 있다.

10여년전 지배인으로 임명된 림영준동무가 공장의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을 때였다.

한 일군이 공장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지금조건으로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가 헐치 않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대부분의 일군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공장이 언제 가도 일어설수 없다는것이였다.

《옳습니다.》라고 대번에 자기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지배인을 보며 협의회참가자들은 그만하면 현실을 잘 리해할줄 아는 사람이 지배인으로 됐다고 제딴의 평가를 내리였다.

그러는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지배인이 물었다.

《그럼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다시 울리는 지배인의 목소리에 협의회참가자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거야 지배인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속대사들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지배인은 말하였다.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은 오직 하나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아니 우리모두가 그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공장은 제발로 일떠설수 있을것입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공장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자신의 결심을 일군들에게 인식시킨 림영준동무는 과학탐구의 앞장에 섰다.

과학의 세계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만 자기의 문을 열어준다. 오늘날에 와서 그 자격이란 첨단과학기술지식이다.

지난 시기의 학력과 생산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과학기술지식이 있었던 지배인이였지만 시대의 요구에 비해볼때 자신의 실력이 떨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한개 공장의 경영활동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수시로 일감이 제기되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언제 한번 학습계획을 드린적이 없었다.

언제인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 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책을 집어드는것을 보고 하루쯤 공부를 안한다고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는 안해에게 그는 말하였다.

《당신도 하루빨리 우리 후대들이 잘살길 바란다고 했지. 그런데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소. 과학의 힘으로써만 그 시간을 앞당길수 있거던. 더우기 나의 실력이 우리 공장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내가 그걸 잊으면 되겠소.》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요구성을 높이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도록 하였다. 공장안에 집단적기술혁신의 불바람이 일도록 작업반별기술혁신경쟁도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이미 있던 낡은 생산설비들을 개조하고 능률적인 설비들을 새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나날이 높아갔다. 생산활성화의 불을 지핀지 불과 한두해후 공장에서는 지난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생산토대가 그쯘히 갖추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질좋은 제품들이 줄지어 쏟아져나왔다. 아름차게만 여겨지던 넓은 부지의 생산건물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공장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생산건물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데도 과학과 기술의 힘이 안받침되여있다. 건설설계에 따른 건설자재소요량은 세멘트만도 수천t이나 되였다. 엄청난 수자였다. 그러나 림영준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과학적타산이 세워져있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사색과 탐구로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쓸모없이 버려둔 페설물을 리용하여 능히 생산건물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과학기술적담보를 얻어냈던것이다. 수천t의 세멘트대신 공장에서 새로 만든 건재로 건물을 일떠세웠을 때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건물벽체가 어찌나 굳은지 어느 한 부서에서 사무실벽에 옷걸이를 설치하려다가 끝내 구멍을 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과학기술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로 되였다.

림영준동무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수입에 의존하던 건재를 자체로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당면한 생산지휘로 바쁜 몸이였지만 밤을 새워가며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건재원료를 찾기 위해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평양출장길에서는 언제나 인민대학습당의 열성독자가 되군 하였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드디여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질좋고 쓸모있는 새 건재품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국가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갈탄소성법에 의한 진주암생산공정과 세멘트압착천정판, 대형보온벽판, 흡음판과 전기절연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품들은 이 공장을 대표하는 제품으로서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현실은 말해주고있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일군의 높은 실력, 여기에 자기 단위와 나라의 부흥을 앞당기는 방도가 있다고.

본사기자 리남호

청춘들의 열정, 꺼질줄 모르는 불빛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내 조국의 전도는 얼마나 밝은가. 우리는 이 물음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저녁풍경을 놓고 대답하려고 한다.

얼마전 우리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았을 때는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루해가 진 뒤였으나 도서관은 대학생들로 꽉 차있었다.

우리와 만난 관장 전상현동무는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일떠선 전자도서관으로 이처럼 매일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밤늦도록 학습에 열중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에 책을 든 학생들이 층계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안겨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속에서 책읽기운동을 널리 벌려 그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자열람실에 들어섰다. 조용한 방에서는 콤퓨터를 마주한 학생들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펴고 최첨단과학의 세계를 점령해나가고있었다.

시간이 가는것도, 날이 저무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콤퓨터화면을 주시하며 최신과학기술자료들과 동화상자료를 비롯한 전공분야의 전자문서들을 탐독해나가는 미더운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학창시절에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여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할 자신만만한 배심이 비껴있었다.

옆에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한 대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그는 열성독학가로 손꼽히는 자동화공학부 조종공학과 4학년 학생 리상동무였다. 콤퓨터화면에 흐르는 다매체편집물과 책상우에 가득히 쌓인 참고도서들이 그의 탐구심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얼마나 민족적자존심이 끓어넘치게 하는 말씀입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서 청년대학생들인 우리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시대적 사명감을 절박하게 새기고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학기술의 최첨단령마루에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기를 띄우고야말것입니다.》

대학생복차림의 그의 모습은 비록 소박하여도 청춘의 심장속에는 얼마나 뜨거운 애국심이, 세계를 압도하려는 야심이 간직되여있는것인가.

문득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에서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며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이악하게 벌려 지난해에 진행된 제6차 전국대학생 3, 4차원설계경연에서 특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관장의 자랑넘친 이야기는 정녕 끝이 없을상싶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하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열람실들에서 흐르는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대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진다는 자각, 조국의 래일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시대의 사명감을 안고 이 한밤도 과학탐구에 뜨거운 열정을 바쳐가는 청년대학생들.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 비낀다고 하였다. 청춘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하나의 지향—세계를 압도할 야심과 전자도서관의 밝은 불빛에서 우리는 보았다. 강성부흥할 내 조국의 밝은 모습을.

본사기자 리건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황주군 삼훈목장 지배인 김명석동무

누구나 책의 귀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며 한생의 길동무라고.

그러나 생활에서는 때때로 이런 말도 들을수 있다.

《요즘은 어찌나 바쁜지 책볼 시간도 없구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하다면 책은 시간이 넉넉하고 한가할 때에만 읽는것이겠는가.

여기에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학습에 대한 관점과 태도만 바로서있다면 책볼 시간은 얼마든지 얻을수 있습니다.》

황주군 삼훈목장 지배인 김명석동무의 말이다.

최근 목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가공품이 쏟아져나오고 갖가지 종자집짐승들이 생산되고있다. 이것은 군의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하고있다.

목장의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는 김명석동무의 높은 실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는 해박한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먹이해결과 집짐승우리건설, 종자집짐승확보와 젖가공기지건설 등 목장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그는 언제나 바쁘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손에서 책을 놓아본적이 없다. 짬만 있으면 책을 읽는다. 이른새벽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후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독서시간이다. 높은 실력으로 사업성과를 공고히 해나가는 김명석동무의 독서기풍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책읽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시간이 아니라 관점이다. 혁명의 량식에 대한 관점이 바로선 사람만이 시간을 아끼고 쟁취하게 된다.

본사기자

책을 말없는 선생으로, 생활의 길동무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책읽는 기풍 교정에 넘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열성독자들의 목소리

멀리 앞을 볼수 있다

옛날같으면 한뉘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이냐고 하겠지만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

농사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도 책에 있고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상식도 책에 있기때문이다. 리도서실에 있는 책들은 거의 모두 읽었고 새로 나오는 도서들도 빠짐없이 읽고있다.

인민대학습당도 자주 찾군 하는데 학습당의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책을 읽고 학습을 하고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앞이 환히 트이는것만 같다. 그처럼 알고 싶어하던 앞선 농사경험도 책에서 배웠다. 이제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진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앞을 볼수 없기때문이다. 남보다 멀리 볼수 없기때문이다.

강남군 당곡리 홍동식

가정의 화목도 독서에 있다

매일 책을 읽는것이 이제는 생활화되였다. 특히 소설과 시집을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즐겨 읽는다.

사람이 책을 읽지 않고 문화정서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정서가 메말라지고 인간성도 없어지게 된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시기에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책에서 읽은것, 배운것을 이야기도 해주고 그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도 나누니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일터에서의 성과도, 가정생활에 넘치는 화목과 활력, 생기도 모두 책읽기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책은 말그대로 말없는 스승이고 생활의 참된 길동무이다.

문천시 문천동 50인민반 남윤철

일군의 자격을 재는 자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체육의 과학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체육부문의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은 매우 크다.

모든 일군들과 감독들은 자기 전공부문에 정통하고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책읽기이다. 요즘 휴식시간과 저녁시간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체육기술자료를 연구하고있는데 확실히 배우는것이 많다. 그것이 사업에 대단히 큰 도움으로 된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자기 사업을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 좀 부끄럽다. 알고 지도하는것과 모르고 지도하는것과는 하늘땅차이가 있기때문이다.

나는 말하고싶다. 오늘 일군의 자격을 재는 자막대기의 하나가 바로 독서열이라고.

체육성 체육기술련맹 과학기술처 김혁철

책읽기에도 묘리가 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성진동무

얼마전 우리와 만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성진동무는 무력대고 책을 흥미거리로, 심심풀이로 읽어가지고서는 남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책을 목적지향성없이 이것저것 흥미거리로 읽어서는 머리에 남는것도 얼마 없고 사업과 생활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최성진동무는 지난 시기 장편소설 《붉은 자리길》을 비롯하여 독자들의 인기를 모은 소설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작가들치고 책읽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최성진동무는 그야말로 열렬한 독서가이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에 취미를 가졌던 그는 짬시간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군사복무를 마친 후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을 거쳐 직업적인 소설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된 그는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학구적인 자세로 책읽기를 중단없이 진행하여왔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수십권이나 되는 부피두터운 독서일지가 있다.

거기에는 그가 책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과 작품에서 해결하려고 한 사회적문제는 무엇인가, 주인공의 성격의 핵은 무엇이며 문학적발견은 무엇인가 등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잘된 명문장까지도 발취되여있다.

책을 단순히 흥미거리로 보지 말고 깊이 분석하고 음미해보며 읽어야 작품의 세계가 오래도록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습득할수 있게 된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나이가 예순을 넘어선 오늘까지도 이러한 책읽기방법을 구현해오고있다.

지식은 결코 저절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며 책도 부단한 사색과 탐구속에 읽어야 말없는 스승이 될수 있다.

본사기자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두 사회제도에 비낀 후대들의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며칠전 저녁이였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딸애가 기다렸다는듯이 달려나와 반겨맞는것이였다.

《아버지, 나 오늘 수학시험에서 5점을 맞았어요.》

딸애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보이며 덧붙여 말하였다.

《이제 4월이면 난 2학년생이 돼요. 그때부턴 우리 나라 모든 학교들에서 12년제무료의 무교육을 실시한대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12년제무료의무교육이라는건 학생들이 12년동안이나 마음껏 배우고 공부하는거래요.》

5점자랑에 신이 났는지 딸애는 묻지도 않은 말을 쉴새없이 하는것이였다.

그러던 그 애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세상에 돈을 내고 공부하는 학교도 있나요?》

뜻밖의 질문이였다.

그 물음을 되새기느라니 자라나는 새 세대들모두가 무료로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밝은 모습,

그와는 반대로 교육이 한갖 치부의 대상으로 되고 학교가 하나의 돈벌이장소로 전락된 자본주의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동시에 눈앞에 떠오르는듯싶었다.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조선은 이미 문명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라이다. 교육 하나만 놓고보아도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여왔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발전하였다. 도처에 꾸려진 교육기지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글은 계속하여 조선에서는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나라에 맡기고있다,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그것이 무료라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뿐아니라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의 고등교육도 역시 무료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주신 수령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시는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고 썼다.

반대로 어떤 출판보도물에서는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소위 문명과 번영을 떠드는 미국에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학비로 하여 해마다 수만명의 고등학교학생들이 중퇴하고있다.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학생들과 교육기관들의 채무액수가 늘어나고 졸업생들의 학업수준이 낮아지고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있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일본도 다를바 없다.

얼마전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자기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비부담을 걸머지고있다고 하면서 돈때문에 마음놓고 공부를 할수 없는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개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무려 5 700만명에 달하고 2억 5 000만명에 이르는 소학교나이의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며 초보적인 계산도 할줄 모른다고 한다.

다름아닌 돈때문에 국가의 보살핌과 관심속에 앞날의 기둥으로 자라나야 할 후대들이 이렇듯 사회제도의 피해자로 속절없이 시들어가고있는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항거하는 교육부문 근로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시위와 파업참가자들은 당국이 경제침체를 구실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교원들을 해고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교원들의 생활처지개선을 위해 똑똑한 교육정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

아직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교육제도의 반동성에 대하여 다는 알수 없는 나이였지만 나는 딸애를 꼭 품어안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돈 한푼 안 내고 마음껏 공부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란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를 빛내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본사기자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력사의 증거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감행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만행을 실증하는 대형폭탄이 발견되였다.

지난 2월말 희천10호발전소 우안언제기초굴착전투를 진행하는 철도성려단의 작업구간에 뜻밖에 커다란 쇠덩이가 나타났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평양으로 향한 도로와 철길,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마구 내던졌던 길이 1.2m, 직경 0.5m, 무게 500㎏의 대형폭탄이였다.

60여년세월이 흘러 비록 탄체에 녹은 쓸었으나 신관과 장약된 폭약이 그대로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폭탄을 보는 순간 돌격대원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가슴은 미제에 대한 증오로 끓어올랐다.

우리의 평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무고한 인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저주로운 양키들의 폭발물들은 오늘도 화약내를 풍기며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위협하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드러난 미제의 가증스러운 불발탄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번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발견된 대형폭탄은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력사의 증거물이다.

발전소건설자들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원쑤들이 파괴한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일떠세운 전 세대들처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칠 의지안고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덕천시계급교양관에서—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

본사기자 찍음

조로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전해질 불멸의 화폭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첫 쏘련공식방문 65돐과 1984년 쏘련공식방문 30돐에 즈음한 평양사진전시회 《친선의 력사》가 진행되고있는 인민문화궁전을 찾았다.

전시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으로 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로씨야련방공산당의 주최로 개막되였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진전시회의 직접적인 발기자인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따이싸예브를 비롯한 해당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외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을 보내왔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8(1949)년 3월에 쏘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의 대외활동사진문헌들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접견하시고 악단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사진문헌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이전 쏘련과 로씨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여러 대표단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올린 선물들과 발전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사진자료들, 약동하는 오늘의 평양시의 일부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조로친선을 상징하는 여러 현실주제의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우리는 전시된 사진문헌들과 사진자료들앞에서 선듯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주체73(1984)년 5월 력사적인 쏘련공식방문을 진행하시여 쏘련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을 뵈오면서 참관자들은 20세기의 태양으로 전인류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주체38(1949)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력사적인 첫 쏘련공식방문을 진행하시며 쏘련인민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들을 우러르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의 영광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였다.

3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4(1955)년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쏘련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는 사진문헌들을 비롯하여 력사의 년대기마다에서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은 참으로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서 국제주의전사 노비첸꼬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사진문헌도 있었다. 사진문헌은 열화같은 사랑과 인간미로 국경을 초월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펼치신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도 참관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로친선의 화원을 대를 이어 꽃피우시며 두 나라 력사의 년대기우에 불멸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우리 장군님,

주체90(2001)년 8월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여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력사적인 조로모스크바선언조인식에 참석하신데 이어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접견하시고 과학, 교육, 문화의 중요단위들과 여러 도시, 공장, 기업소들을 참관하시는 사진문헌들, 주체91(2002)년 8월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시여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아무르조선소와 월로챠예브사단을 비롯하여 원동지역의 여러곳을 참관하시는 사진문헌들 그리고 주체100(2011)년 8월에 또다시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시여 메드베제브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원동의 대동력기지 부레야수력발전소를 참관하시는 사진문헌들을 우러르느라니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와 발걸음을 뗄수 없었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2(2013)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접견하시고 악단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사진문헌도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조로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고있는 그들을 축하해주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오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관심속에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는데 대하여 깊이 새겨안았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은 온 세계가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로 뿌듯해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조로친선의 력사는 보다 줄기차게 흐를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뿌리내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철혁

외국녀성들의 반향

행복넘친 조선녀성들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목격한 외국녀성들은 저저마다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단장 진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녀성들을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고계신다. 녀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세계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녀성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한마음안고 여러 초소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마르씨아 데 깜뽀스 뻬레이라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안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대단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모습은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녀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아일랜드친선대표 이리나 말렌꼬는 녀성들의 무거운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가 세워준 보육기지들은 녀성중시의 화원속에서만 볼수 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속에서 조선의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느꼈다, 바로 이 제도야말로 녀성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씨싸이 르뎃문쏜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방문나날에 조선녀성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에 대하여 직접 느끼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그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있다.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단장 키라샤 파울린은 이렇게 말하였다.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하신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조선녀성들은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복받은 녀성들이다.

브라질녀성련맹 위원장 글라우씨아 데 파띠마 바르반 모렐리는 조선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이야말로 가장 긍지높은 녀성들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녀성운동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남조선의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4일 괴뢰군부깡패들은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들을 살포하는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독수리》북침핵전쟁연습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 때에 괴뢰들은 불한당들을 내몰아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공공연히 짓밟고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체제를 헐뜯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미쳐날뛰는 괴뢰군부악당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군부패당의 도발망동은 더는 간과할수 없는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고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화전량면전술》이니, 《위장평화공세》니 뭐니 하는 악담으로 모독한것도 김관진과 같은 천하의 불망나니를 두목으로 하는 괴뢰군부패당이고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대북심리전은 비방중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망발을 줴치면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려온것도 다름아닌 괴뢰군부깡패들이다.

이번에 괴뢰들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히 비방중상하는 삐라까지 살포하는 망동을 부린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괴뢰호전광들의 무지막지한 히스테리적광기가 극도에 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천하무도한 도발행위가 남조선당국의 배후조종과 직접적인 참가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우익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벌리게 하고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지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언론의 자유》니,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니 뭐니 하는 궤변으로 변명해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괴뢰군부패당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범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스스로가 비방중상중지합의를 뒤집어엎고 반공화국대결망동을 추동하고있는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가관은 제 집안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천하망동짓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통일의 사도》인양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신뢰》니, 《평화》니 하는 감언리설을 늘어놓으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이다.

실로 안팎이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상대방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겠다는것인가. 그리고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거짓을 날조하면서 평화에 대해 감히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정책이 지속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괴뢰군부깡패들이 날치는 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란 언제 가도 있을수 없으며 전쟁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괴뢰군부패당의 극악한 망동에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자들을 불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도발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불태우고있다.

우리는 자기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있든, 그 어느때이든 반드시 가장 처참한 징벌을 가하고야말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무지막지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주체103(2014)년 3월 26일
평 양

천하의 극악한 군부깡패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역적무리들에게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지금 우리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괴뢰군악당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며 발광하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까지 살포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당장 그 장본인들과 본거지를 혼적도 없이 날려보낼 보복성전을 단행해야 한다고 가슴을 치며 토로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괴뢰패당의 비렬한 음모책동은 지금 절정에 달하고있다. 괴뢰정보원놈들은 어리석은 야망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더욱 악을 쓰면서 종교와 민간의 탈을 쓴 첩자들을 내몰아 우리의 내부를 허물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 괴뢰군부깡패들까지 나서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을 벌리였다.

적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고 미쳐날뛰는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우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원쑤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우리 내무군장병들은 제도보위의 붉은 칼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는 원쑤놈들을 가차없이 찍어버릴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우리에게서 자비를 바라지 말라. 특대형도발행위는 오직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김성철

불한당들을 모조리 죽탕쳐도 씨원치 않겠다

최근 괴뢰군부깡패들이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삐라들을 마구 뿌려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중상모독하는 천하의 역적짓을 저지른것은 추호도 묵과할수 없는 범죄적 악행이다.

미친개가 날치는 동네는 편안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북침을 노린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괴뢰군부악당들은 그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으로도 부족하여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까지 헐뜯으며 무엄하게 날뛰고있다.

이런 무분별한 도발소동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동무들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이번에 또다시 몸서리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해나선 괴뢰군부깡패들을 사정볼것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어리석고 무지한 괴뢰불한당들에게 말해줄것이 있다. 아무리 심리모략전으로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해도 소용이 없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쑤들의 광기어린 반공화국도발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최첨단돌파전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가겠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실장 박용진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은 괴뢰군부망나니들의 특대형도발행위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피를 꺼꾸로 솟게 한다. 정말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 견딜수 없다. 이놈들이 감히 어디에 대고 그런 망동을 부린단 말인가.

지금 원쑤들은 허황한 망상밑에 자라나는 우리의 새 세대들을 노리고있다. 적들은 비렬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목표를 우리 청년들에게 돌리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백두의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는 괴뢰들의 모략이나 심리전따위의 허깨비짓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우리 공화국을 《악》이라고 걸고들며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뒤골방에 처박혀 산송장이 된 부쉬놈까지 남조선에 날아들어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영웅》으로 개여올리는 추태를 부렸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어쩌니저쩌니 하며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상전의 대결광기에 기세가 오른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에까지 도전하며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덤비고있다.

가소로운것은 괴뢰군악당들이 스스로의 망동으로 자멸을 재촉하고있다는데 있다. 정말 가련한 놈들이다.

이 땅은 넓지만 특대형범죄자들이 살아숨쉴 곳은 한쪼박도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장광성

남아메리카국가동맹 성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 발효

남아메리카국가동맹이 최근 성원국들의 합법적질서를 파괴하는 정변이나 공격시도로부터 이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아르헨띠나, 볼리비아, 꼴롬비아 등 나라들이 조인한 이 의정서에 따라 동맹은 그 조항을 어기게 되면 국경봉쇄, 무역관계단절, 비행운행금지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의정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간섭이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발효된것으로 하여 주목되고있다.

미국신문의 허위보도 배격

파키스탄정부가 20일 자기 나라 정보기관이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숨기고있었다고 한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배격하였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신문의 보도를 무근거하고 적대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한편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미국신문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신문에 실린 자료들이 거짓이라는것이 증명되였다고 반박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만행에 광분하고있다.

2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동북부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안전지대》건설을 반대하여 항의시위를 벌리는 수십명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최루탄과 실탄을 마구 쏘아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2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의 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인들 환경피해악화에 우려

미국인들속에서 악화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9일 이 나라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이 나라에서 환경피해가 날로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엄중한 사태로 번져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소동은 위험도수를 넘어 극단한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며칠전 미국무성의 고위인물이 공개석상에 직접 나서서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민주주의모델이 못된다.》느니, 100% 찬성투표에 《의심이 간다.》느니 하면서 선거결과까지 함부로 시비질해대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에 질겁한자들의 가련한 비명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로케트발사를 계기로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해 감히 《악의 나라》라는 망발을 줴친 미국의 《인권》공세가 우리의 주권기관선거까지 거들며 험담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인권》나발을 불어댄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는 그 집요성과 악랄성, 지구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다. 미국은 이미전에 북조선의 《인권문제》해결이 《자유세계의 기본목표의 하나》이라고 떠벌이면서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드러낸바 있다. 미국에서 인권문제전문가라고 하는자들이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킬수 없다면 〈인권〉문제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라느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조선핵문제뿐아니라 〈인권〉상황을 영구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댄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인위적으로 날조하고 국제적으로 여론화, 정치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인권존중의 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이 펼친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누려왔다. 우리는 자주권과 인권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고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남들처럼 유족하게 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힘과 제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이 땅에 일떠세우려는 목표를 현실로 꽃피워가는데서 크나큰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새로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벌리기 시작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소동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는 세상에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미국에 《인권재판관》의 모자를 씌워준 일도 없고 특권을 준 일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쩍하면 인권몽둥이를 내휘두르고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을 비방중상하고있다.

국제인권무대에서 타고난 《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의 몰골은 참으로 역스럽다.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처지도 못되는자들이 《인권의 화신》처럼 놀아대면서 호령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고사하고 권력의 희생물, 상품화된 로동력으로서 압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근로하는 인민들은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며 설사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불안속에 살고있다. 아무리 병이 위급해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수 없고 죽어야만 하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가 하면 살인과 강도 등 무서운 범죄의 길에 뛰여들고있다. 미국경찰들이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월가시위자들을 어떻게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는가를 세상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다.

미국집권자들이 떠들고있는 《자유》는 독점자본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과 로동권을 잃는 《자유》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도 지역적, 인종적 모순과 사회적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통치배들이 《만민복지》를 부르짖지만 미국에서 국민의 최하층이 최상층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있다.

미국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총기류범죄사건은 악취풍기는 미국사회의 내면세계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총을 빼들고 길가는 사람들을 무작정 쏴죽이고 은행을 습격하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까지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원과 학생들을 쏴죽이는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살인광경이 매일같이 펼쳐지고있다.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벌어지고있는 이런 사태들을 다 렬거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페허지대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 못살 사회, 약육강식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진정한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는 이런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를 부러워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최근년간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선거문제》를 거들며 선거가 공정치 못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겨 혼란을 조성하고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로골적인 무력침공까지 감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과 제재, 군사적공갈정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 미국이 우리 나라의 《선거문제》를 걸고든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그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오늘날에 와서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는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온갖 공세를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승의 보검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은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이라는것이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여왔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참다운 인권이 꽃펴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켜보려고 비렬한 《인권》공세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격발시키고있으며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북돋아줄뿐이다.

미국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권을 함부로 짓밟으려고 하는것은 오뉴월의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남의 일에 대해 횡설수설하지 말고 제코나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리현도

ㄱ-41048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